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영미¹, 안은경^{1*},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The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Students

Young-Mi Jang¹, EunKyong Ahn^{1*}

¹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302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인식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의식($r=.149, p=.010$), 연명치료중단($r=.22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129, p=.025$)를 나타내었다. 도덕적 민감성($\beta=.247, p<.001$)과 생명의료윤리의식($\beta=-.166, p=.003$)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과 내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Moral Sensitivity(MS), Biomedical Ethics Awareness(BEA)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AWLST)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2018 to May 20, 2018 for 302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The average degree of MS was 3.45, BEA was 3.69, and AWLST was 3.36. M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EA($r=.149, p=.010$) and AWLST($r=.223, p<.001$). BEA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WLST($r=-.129, p=.025$). Models including MS($\beta=.247, p<.001$) and BEA($\beta=-.166, p=.003$) explained 7% of variance in the AWL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that consider the MS, BEA and AWLST level of nursing students to help them establish an acceptable view of AWLST.

Key Words : Moral Sensitivity,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ursing student, Nursing Ethics education

1. 서론

현대사회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연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의료기술에 의한 생명연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연명치료중단이나 존엄사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게 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 안은경(aek@dst.ac.kr)

Received May 16, 2019

Revised June 10,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30, 2019

연명치료중단은 환자가 자연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도를 갖고 생명을 연장하는 의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1].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2009년 ‘김 할머니 사례’의 발생이다. 이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2], 201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법제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 또한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환자와 보호자 간의 소통 부재 등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장애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연명의료결정에 직접 참여한 환자의 비율이 평균 21.2%에 불과하며 연명치료중단 결정도 평균 사망하기 1.76일 전에 결정된다는 보고가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와 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의사결정을 돕는 상담자, 조정자, 옹호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5]. 간호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2, 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7-8]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2, 5-6]. 학년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즉, 1학년인 경우가 다른 학년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수준이 더 높았는데[7], 이는 임상실습 경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나[3] 임상 실습 전·후 또는 학년별로 생명의료윤리의식수준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각 차이를 파악한 후 예비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2]. 본 연구의 대상을 아직 임상실습

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으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7, 9]. 간호대학생이 어떤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졸업 후 행하는 전문적 간호행위와 직결되며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10]. 그러나 아직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 그 수가 적은 실정이며,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2].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식은 도덕적 민감성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11]. 도덕적 민감성은 특정 상황에 직면할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윤리적, 도덕적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가 높고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또한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수행정도가 높기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 배양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 가치관 확립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1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들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학년과 2학년 학생 302명이다.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에서 산출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19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2부가 회수되어, 최종 30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도덕적 민감성

Lutzen, Evertzon과 Nordin(1997)이 개발한 도구를 Han, Kim 등(2010)[1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서, 환자중심간호 5문항, 전문적 책임 7문항, 갈등 5문항, 도덕적 의미 6문항, 선행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Kim 등(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3.3.2 생명의료윤리 의식

Lee(1990)가 개발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를 Kwon(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15]를 사용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으로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 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이며 총 49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3.3.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Park(2000)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Byun 등(2003)[1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15개 문항, 부정적 입장을 기술하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점수가 낮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Byun 등(2003)[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3.4 자료수집 및 연구윤리

본 연구는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2018-002-001)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였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언제라도 설문에 대한 응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연구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정도였고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3.5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상관관계 확인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302명으로 1학년 154명(51.0%), 2학년 148명

(49.0%)이었고, 여학생이 261명(86.4%), 남학생 41명(13.6%)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종교는 없음이 174명(57.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83명(27.5%), 천주교 30명(9.9%) 순으로 많았다. 윤리적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응답한 경우가 139명(46.0%), 매우 확고하다 81명(26.8%), 가끔 혼동된다 76명(25.2%)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n=3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First	154	51.0
	Second	148	49.0
Gender	male	41	13.6
	female	261	86.4
Religion	Protestant	83	27.5
	Catholic	30	9.9
	Buddhism	13	4.3
	None	174	57.6
	Other	2	0.7
Ethical value	Very firm	81	26.8
	Sometimes confused	76	25.2
	Change according to situation	139	46.0
	Think it is not realistic	6	2.0

4.2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Table 2> 와 같다. 총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5(±0.37)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환자중심 간호 3.85(±0.49)점, 전문적 책임 3.75(±0.47)점, 갈등 3.33(±0.55)점, 도덕적 의미 3.24(±0.60)점, 선행 2.94(±0.52)점 순으로 나타나 환자중심 간호영역이 가장 높았고, 선행이 가장 낮았다. 총 생명의료윤리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9점(±0.2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신생아생명권 4.14(±0.54) 점, 장기이식 4.00(±0.65)점, 태아진단 3.86(±0.49)점, 인공임신중절 3.75(±0.41)점, 태아생명권 3.66(±0.61)점, 인공생명공학 3.58(±0.42)점, 인공수정 3.55(±0.51)점, 안락사 3.44(±0.54)점, 뇌사 3.34(±0.43)점 순으로 신생아생명권이 가장 높았고, 뇌사 영역이 가장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3.36점(±0.4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n=302)

Variables	Mean	SD
MS	3.45	0.37
Patient centered nursing	3.85	0.49
Professional responsibility	3.75	0.47
Conflict	3.33	0.55
Moral meaning	3.24	0.60
Beneficence	2.94	0.52
BEA	3.69	0.26
Right to life of fetus	3.66	0.61
Artificial abortion	3.75	0.41
Artificial insemination	3.55	0.51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86	0.49
Right to life of newborn	4.14	0.54
Euthanasia	3.44	0.54
Oagan transplantation	4.00	0.65
Brain death	3.34	0.43
Human biotechnology	3.58	0.42
AWLST	3.36	0.42
Negative	2.33	0.46
Positive	3.64	0.55

MS: Moral Sensitivity

BEA: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WLST: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4.3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 중단 태도와 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도덕적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의식(r=.149, p=.010),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r=.22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r=-.129 p=.025)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N=302)

Variables	MS	BEA	AWLST
MS	1		
BEA	.149	1	
	(.010)		
AWLST	.223	-.129	1
	(<.001)	(.025)	

MS: Moral Sensitivity

BEA: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WLST: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4.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도덕적 민감성과 생명의료윤리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978, 분산팽창지수는 1.02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12.393(p<.001)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beta = .247, p < .001$)과 생명의료윤리인식($\beta = -.166, p = .003$)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N=302)

Factors	B	β	t	p
MS	.284	.247	4.401	<.001
BEA	-.275	-.166	-2.956	.003
Adj R ² = .070		F(p)=12.393(<.001)		

MS: Moral Sensitivity

BEA: Biomedical Ethics Wareness

AWLST: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3.45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7점 만점에 5.16점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17],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였을 때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2]와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3.36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18]의 결과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으로 아직 간호윤리 교과목과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적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적 민감성

은 특정 상황에 대해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능력[19]으로서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핵심요소인 도덕적 민감성[21]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2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도덕적 민감성의 하부영역에서는 환자중심 간호가 가장 높고 선행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Yoo, Shon[2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으나, 갈등이 가장 높고 환자중심 간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Kim의 연구[12], 선행이 가장 높고 도덕적 의미가 가장 높은 Jeong의 연구[17]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도덕적 민감성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환자중심간호 영역의 민감성이 높다는 것은 대상자 중심의 간호제공을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의미이므로 긍정적인 결과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도덕적 민감성 하부 영역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덕적 민감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6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1, 2학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을 2.69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9]에 비해 높았다. 또한 모든 학년을 포함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조사하였을 때 3.03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24], 2.87로 보고한 선행연구[12], 2.81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25]와 2.96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9]에 비하여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학년과 2학년이며 도덕적 민감성 수준이 선행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보였다라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Lim 등[24]은 2학년에 비해 3, 4학년의 생명의료윤리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고, Kwon[10]은 간호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im 등[26]의 연구에서는 1학년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4학년 보다 높았는데, 이는 4학년이 임상실습을 통해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윤리적 기준이 혼돈되는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의료윤리 하위영역에 대한 의식 정도는 신생아 생명권, 장기이식, 태아진단, 인공임신중절, 태아생명권, 인공생명공학, 인공수정, 안락사, 뇌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생명권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연구[26], 죽음의 윤리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2], 안락사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27-28]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이식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17, 20]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장기이식에 대한 의식은 높고 안락사와 뇌사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최근 안락사와 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죽음에 있어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생아생명권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주로 신생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선행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안락사나 뇌사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58점으로 측정되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9]에서 3.2점으로 보고한 결과, 3.62점으로 보고한 연구[2]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의 결과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생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등의 사회적 변화를 체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중단 결정 상황에서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심도 있는 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Chof[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7]나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는 선행 연구[8]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성향이 강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29]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유의하기는 하였지만 강도가 낮았으며, 두 변수 간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도덕적 민감성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12]와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2]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덕적 민감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수행정도가 높기 때문에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 배양이 필요하다는 보고[30]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7%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었으며, 도덕적 민감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

- [1] B.H. Kong. (2014). Nursing Ethics. Seoul : Hyunmoonsa.
- [2] G.M. Kim, K.S. Sung & E.J. Kim (2017).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3), 292-299.
<https://doi.org/10.4094/chnr.2017.23.3.292>
- [3] G.N. Kim, E.H. Kang & M.Y.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429-437.
<https://doi.org/10.5762/KAIS.2017.23.3.292>
- [4] Journal of Korean Geriatrics Society Chungcheong Branch (2018). Spring Conference, pp. 31-63.
- [5] E.Y. Kim, E.H. Seo & E.Y. Jung (2017).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1), 1-8.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1.1>
- [6] K.H. Jo (2010). The Meaning of Dignified Dying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72-82.
- [7] E.Y. Kim (2018). Effects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453-463.
<https://doi.org/10.14400/JDC.2018.16.9.453>
- [8] E.J. Choi, H.S. Jung (2018).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75-284.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75>
- [9] Y.H. Cho (2017).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59-369.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359>
- [10] Y.H. Kwon (2009).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2), 262-272.
- [11] Thompkins. P.S (2009). Rhetorical listening and moral sensitivity. *Journal of Listening*. 23(2), 60-79.
- [12] M.S. Kim (2015).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82-392.
<https://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13] Comrie R.W. (2012). An analysis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nurses' moral sensitivity. *Nursing Ethics*. 19(1), 116-127.
- [14] S.S. Han, J. Kim, Y.S. Kim & Ahn S (2010).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17(1), 99-105.
- [15] Y.H. Kwon (200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16] E.K Byun, H.R. Choi, A.L. Choi, N.M Kim, K.H Hong & H.S Kim 2(003).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attitude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on terminating life support. *Clinical Nursing Research*. 9(1), 112-124.
- [17] K.S. Jeong (2013).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5672-5681.
<https://dx.doi.org/10.5762/KAIS.2013.14.11.5672>
- [18] D.B. No, S.A. Kim & S.H. Kim (2013). Moral distress,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climate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3;22(4):307-319.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4.307>
- [19] S.H. Lee, S.Y Kim & J.A Kim (2007).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3(2), 145-155.
- [20] H.Y. Ahn, B.S Cho, S.H. Choi, W. Choi & Y.M. Go (2008).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98-107.
- [21] H.J Kim (2009) Research on the role of moral sensitivity and the implication of morality and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2] Y.J. Lee, Y.S Kim (2017). The Difference of the Death Perception, Death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8(2), 95-109.
- [23] M.S, Yoo, K.C. Shon (2011).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2(2), 61-76.
- [24] M.H. Lim, C.S. Park (2014).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7), 4423-4431.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423>
- [25] Y.R. Jung, Y.H. Lee (2017). Affecting Factors of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4), 389-397.
- [26] R.H. Kim, E.J. Lee (2012). A Comparison of First-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Biomedical Ethic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5(1). 78-95.
- [27] S.D. Kim (2011). Research Ethics and Bioethics Education in Biomedical Scienc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4(4). 456-467.
- [28] Bazrafcan L, Nabeiei P, Shokrpour N & Moadab N (2015). Medical ethics as practiced by students, nurses and faculty members in Shiraz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 Professionalism*. 3(1), 33-38.
- [29] J.R, Moo (2013). Attitude on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Ethical Values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30] K.H. Jo, Y.J. Kim (2013). The Impact of Nurses' Attitude toward Dignified Death and Moral Sensitivity on Their End-of-Life Care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6(4). 223-231.
<http://dx.doi.org/10.14475/kjhpc.2013.16.4.223>

장영미 (Young Mi Jang)

[정회원]



- 200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9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윤리, 만성질환
- E-Mail : jym79@dst.ac.kr

안은경(EunKyong Ahn)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윤리, 리더십
- E-Mail : aek@dst.ac.kr